| 제1933호 |

수원 주보

사순 제3주일

2021. 3. 7(나해)

음성지원QR코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심순화 카타리나 作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20,1-17 <또는> 20,1-3.7-8.12-17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2독서 1코린 1,22-25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3-25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발행 천주교 수원교구 **발행인** 이용훈 주교 **편집** 홍보국.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문의** 031) 242-8081 http://www.casuwon.or.kr **카카오톡채널** 천주교 수원교구

내 안에 하느님의 자리

글 | 기정만 에제키엘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5).

당신의 자녀를 해방과 자유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구원활동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약함은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입니다. 곧 우리 구원의 길은 하느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자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당신 사랑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약함을 먼저 보여주시며, 우리 또한 그 약함을 살아 우리 안에 당신 사랑이 스며들 자리를 만들도록 초대하십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쉽게 "아, 나도 저들을 도울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에 신음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들을 도울 강한 힘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불의함 때문에 인권을 빼앗긴 채 숨죽여 아파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줄 강한 권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언가를 더 갖거나 소유한 이후에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일은 결코 현재화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사랑에 다가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느님은 엄청난 힘과 권력 그리고 재화를 가지고 위로와 희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우리를 위한 사랑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강한 힘과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 약해지고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당신 사랑 안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의 희생과 약함이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 안에 하느님 사랑이 스며들 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더 많은 것과 강한 것을 채운 후에 하느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하느님 앞에 스스로 약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하느님 사랑이 흘러넘칠 자리가 생깁니다. 더 높은 곳과 화려함을 좇던 우리의 눈은 그 어느 것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의 약해져감이 바로 하느님과 만나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이룹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스며들도록 스스로 십자가의 약함을 자신 안에 만들어가며 그 약함을 자랑합시다.

가장 훌륭한 묵상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글 |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살레시오회)

절박한 기도 지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와서 아무도 없는 소성당을 찾았습니다. 반나절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 그저 십가가상 예수님만 뚫어지게 올려다봤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거기 계시면 보기 좋을 텐데, 기쁘고 환한 표정이면 금상첨화일 텐데, 세상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못 박혀 계시니 은근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수난당하시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에 제자들의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공생활 기간 보여주셨던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메시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나약하고 가련한 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전락한 예수님의 모습에 군중들을 슬슬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말마의 고통을 겪으며 울부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더는 능력도 기적도 발휘하지 못하시는 그분의 모습 앞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더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 앞에 다들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곰곰이 묵상해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게 아니더군요. 비록 외적인 사도직은 멈추셨지만, 영적인 사도직, 기도의 사도직을 계속하셨습니다.
성금요일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인간들의 배신과 반역 앞에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비애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음먹기에 따라 당시 골고타 언덕에서 벌어진 판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감추십니다. 극도로 자신을 통제하였습니다. 철저하게도 침묵하시며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순명하시며 깊은 묵상기도를 바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둘러서 있던 사람 중에는 도저히 용서 못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침묵 속에 가만히 계시니, 아예 그분을 갖고 놀았습니다. 몇몇 군사들은 예수님을 완전 노리갯감으로 여기고 놀려댔습니다.
그런 악한들의 몰지각한 행동 앞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정녕 놀랍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원죄의 심리적 의미

글 | 이나미 리드비나(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처음 성경을 접하는 이들이 갖는 흔한 의문과, 혼란을 일으키는 장면 중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금한 지혜의 열매를 따 먹는 부분입니다. 교리 배우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이들이나 할 법한 어찌 보면 유치한 질문들을 요약해 볼까요.

우선 하느님은 미래도 보실 수 있는데, 인간이 뻔히 거짓말할 것임을 아시면서 왜 선악을 알아볼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죄짓는 것이 재미있으셨을까요? 또 지구라는 낙원에서 그대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지, 왜 인간이 추방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를 만드셨을까요? 게다가 그 존재가 이롭지 않고 해로운 것만 있는 사탄을 만드셔서 뱀으로 하여금 인간을 유혹해 거짓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느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진실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또 우리는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까지 떠안고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잊을만하면 생각나지만 제 힘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큰 수수께끼이지만, 사실 딱히 시원한 대답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어차피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니 그냥 유보하고 살아야지, 할 때가 많았지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성경 속의 가르침들을 나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질문은 과연 올바른지, 또 성경의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물어보는 작업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거짓말 장면에는 인간이 윤리성을 키워나가는 데 꼭 필요한 "금기"의 체험과 관련된 "도덕성 발달"에 대한 주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성장이나 성숙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지요. 한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면화해서 받아들이는 도덕성을 갖추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간이 태어난 이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회도 개인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의 금지 명령은 인간이 사회화되는 첫 번째 관문인, "안 돼!"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 같아 보입니다. 순진한 아이건, 계산할 줄 모르는 짐승이건, 일단은 힘이 없어 복종을 하지만, 잠깐 한눈을 팔면 금방 어른이나 사람의 눈을 속이지요. 거짓말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심리적 단계는 돌이 막 지난 어린아이의 행동과 감정 같은 아주 초기 인간의 성장단계가 아닐까요.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아장아장 걸음을 떼는 인간에 대한 은유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에 따라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 운명을 바라보는 작업은 다음 편에 더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라는 그릇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졸렬한 방식으로 감히 해석해 보았습니다.

제대 위에서 바라본 나

글 | 임선혜 아녜스(성악가)

제가 사는 베를린에는 24시간 동안 열려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성체 현시가 되어있는 이 '성 클레멘스 성당'에서는 매일 두, 세 대의 미사와 로사리오, 자비심을 위한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바치죠. 또 마음이 힘들 때면 언제든 성전 뒷벽에 마련된 벨을 눌러 고해나 상담을 청할 수 있습니다.
열심한 후배가 이곳을 알려주었을 때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몹시 반가웠습니다. 독일에서 매일 미사가 있는 성당을 찾기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선 성당의 첫인상은 '음산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니며 본 유럽 교회들의 화려함이나 장엄함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따뜻함마저 없다니. 볕도 잘 안 들고 조명도 어두우니 우울하게까지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이곳에 오가는 사람들도 그리 보였습니다. 번듯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보러 성당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분위기는 제 마음에 뭔지 모를 불편함을 낳았어요.

그들은 모두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쩜 그 모습이 그들을 가난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같았어요. 무릇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야 쿨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건데, 그걸 모르거나 개의치 않는 것처럼 오로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온전히 매달리고 기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비슷한 듯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남보기 구차하게 속내를 드러내기가 싫었던지 그동안 저는 '그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시쳇말로 '시크하게' 마치 구경꾼인 양 성당에 적당히 폼나게 발을 들였다가 빼기를 반복했었죠. 한동안 머물다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주 오게 될까? 성당 문이 늘 열려있는 건 고맙기 이를 데 없지만 이 분위기는 좀…'.
그런데 다음 날 저는 뭔가에 홀린 듯 다시 클레멘스 성당으로 갔습니다. '다시 봐도 같은 분위기인데 내가 여길 왜 또 온거지?' 여전히 미심쩍은 마음으로 멀찌감치 앉아 제대 위의 성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문득, '저 제대 위에서 보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거꾸로 저 먼 제대로부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야말로 참 없어 보이더군요. 뭔가 간절해 보이고요. 네, 실은 마음이 몹시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속 간절한 가난함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큰 제대 벽화 속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가오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인자하게 맞고 있는 '착한' 목자 예수님!
가난한 마음만 남은 덕에 장사꾼이나 환전꾼처럼 그분께 쫓겨날 일을 면한 저는 드디어 그곳에 어울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

글 | 이원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LAB2050 대표)

'블랙록'이라는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조 원이나 되는 자금을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회사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초 전 세계 주요 기업에 놀라운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매출 가운데 25% 이상을 석탄과 관련한 사업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나, 이사진 중 여성이 2명 미만인 기업 등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기업 경영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버는 기업이 각광받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신경 쓰는 기업, 성평등을 직접 실천하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착한 기업'이 투자도 더 많이 받고 제품도 더 많이 파는 시대가 왔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거처럼 이익만 키우려 주변을 파괴하며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가는 기업이 아닌,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런 경영이나 투자 행태를 'ESG'라고 부릅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책임감 있게 챙기는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곳에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나무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을 파헤치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며 석탄과 석유를 태워 지구의 온도를 계속 높이는 기업에 박수를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돈만 잘 벌어준다면 인권이나 부패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중요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지구는 오늘 복음 속 성전과 같은 곳이 아닐까요? 우리 모습이 하느님 보시기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며 환전을 하는 장사꾼들 같지 않을까요? 전 세계를 뒤덮은 기후 위기와 감염병 같은 경고는 이런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아닐까요?

이제 그 꾸짖음에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ESG를 기억해야 합니다. 포장지를 줄이고 석탄과 석유를 덜 쓰려 노력하며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경영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라면 착한 기업을 찾아 소비하고,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이고 투명한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꾸짖음에 성의있게 대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란?

청년 김대건길과 연계된 명소에 설치된 스탬프를 찍으며,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스탬프 명소(성지 운영 시간 : 화요일~ 주일, 09:30~17:00)

은이 성지

소년 김대건이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된 성소의 요람

골배마실 성지

성소의 꿈을 꾸며 소년 시절을 보낸 곳

고초골 공소

교구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 공소

손골 성지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던 장소

미리내 성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묻혀 계신 곳

참여 방법

- 오프라인 : 스탬프 명소에 설치된 스탬프 함에서 스탬프 북 수령 → 스탬프 투어 참여
- 모 바 일 : '용인관광' 앱 실행 → 청년 김대건길 → 스탬프 투어 참여
  (청년 김대건길 화면으로 들어가면 스탬프 인증 내역 확인 가능)

※ 스탬프 투어 참여자에게 '뜻밖의 혜택' 용인관광지 할인 제공

완주 인증 및 기념품 배부

- 위치 : 용인중앙시장 머묾카페 1층 "여행+ 머묾"에서 완주 스탬프 날인 및 기념품 수령(운영 시간 09:30~18:00)

※ 기념품은 정해진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홍보 영상 보기 ▶

교구 소식

✝ 특별헌금

매월 첫째 주일에는 사제양성 특별헌금이 있으니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에 기억할 사제

강현홍(요한) 신부
1989년 3월 11일 선종

미사 피정

성심 수녀회 예수 마음 배움터 피정 및 교육

'찬미받으소서'와 함께 하는 사순 피정

일시 3.27(토)~28(주일)

내적 여정 에니어그램(심화)

일시 3.13(토)~14(주일)

아름답게 나이들기 워크샵

일시 3.26(금)~28(주일)

성경 대학 봄 강좌

일시 3.11~5.20(매주 목) 13:00~15:00

'찬미받으소서' 봄 강좌

일시 3.16~5.18(매주 화) 14:00~16:00

문의 010) 9099-2337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자연 순례 피정

일시 3.27~29, 4.16~18, 4.26~28

성지 순례 피정

일시 3.15~18, 3.21~24, 4.5~8

내용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평화 순례·미사(성무일도)·나눔·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 02) 773-1463, 064) 756-6009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교육 모집

골롬반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비대면)

일시 3.14(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동선동)

대상 24~40세 신자

문의 010) 3817-0567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2021년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신청 상시

접수 cyberbible.casuwon.or.kr

문의 031) 360-7635, 010) 7470-7966

2021년 수원교구 1학기 성경 공부 (온라인)

개강 3월 첫 주

신청 각 본당 사전 접수

비용 첫걸음·일반 과정-2만 5천 원
통독 과정-만 원
은빛 과정-없음
※ 각 과정 교재비 별도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31) 8019-5400~1
제1대리구 복음화2국 성경사목
031) 360-7633~5
제2대리구 복음화2국 성경사목

수원주보 메일링 서비스

수원주보를 매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회 원 : 수원교구 홈페이지 로그인 → 회원정보 → 정보수정 → 메일수신 '수신' 체크 → 수정하기

② 비회원 : 수원교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 메일수신 '수신' 체크 → 가입하기

※ 수원교구 홈페이지 www.casuwon.or.kr

2021년 예수회 특별 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 '봄' 강좌

현장 강의

개강 3.9(화)
일시 매월 둘째·넷째주 화, 10:00~11:55 (총7회)
장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동영상 녹화 강의

방법 현장 강의 녹화 1주일 후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예 : 3월 9일 강의-3월 16일 발송)
강사 송봉모 신부 외
문의 02) 3276-7733 center.jesuits.kr

2021년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상반기 생태 영성 학교

일시 3.10~31(매주 수) 14:00~16:00
마감 3.8(월)
장소 수원교구청 2층 강의실 지하4회의실
비용 2만 원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70) 4134-5236

2021년 상반기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

일시 3.13(토) 09:30~13:00
마감 3.7(주일)
장소 온라인 줌(Zoom)
참고 social.casuwon.or.kr
문의 031) 268-3907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CANA 혼인 강좌

일시 3.14(주일)
마감 3.8(월)
비용 4만 원(커플당)
신청 http://family.casuwon.or.kr
문의 031) 8019-5395 제1대리구 복음화3국

수원교구 여성연합회 제79차 정기 교육

일시 3.25(목) 12:30~17:0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강의실
대상 여성 신자
비용 무료
강사 양기석 신부
주제 "공동의 집, 지구생태계 위기의 해법 - 인간다움을 찾는 길"
준비 마스크, 개인 컵, 미사 준비
문의 031) 242-1379

2021년 대건청소년기획봉사단 참여 청소년 모집

내용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동아리
대상 수원교구 내 청소년(고1~24세, 199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비용 2만 원
인원 16명
마감 3.16(화)
참고 www.csdy.or.kr
문의 031) 360-7922 대건청소년회 사무국

2021년 부모 기도학교

일시 3.26(금)~10.29(금)
마감 3.12(금)
대상 수원교구 내 자녀를 둔 부모
비용 5만 원
내용 온라인 줌(Zoom)과 밴드 이용
신청 v2.casuwon.or.kr '교육신청'
문의 031) 360-7637 제2대리구 청소년1국

2021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마감 3.31(수)
신청 ci.catholic.ac.kr(원서 다운)
문의 02) 745-8339

가톨릭 성음악 클래식 기타회 초급 과정

음악 치유 피정반

일시 4.9~23(매주 금) 13:00~17:00
비용 12만 원

음악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일시 4.8~22(매주 목) 13:00~17:00
비용 15만 원
장소 한국음악치료연구소
지도 김경희 신부
문의 010) 4252~1165, 02) 575~766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 2021 사순 시기 저금통

모바일 납부 바로가기

2021 사순 시기에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생계와 생명의 위협에 처한 형제자매를 위해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고 나눔을 실천합시다.

기간 2.1(월)~4.20(화)
사용 '생계지원' '긴급치료비지원'
방법 ① 사순 시기 저금통 : 본당에서 받은 저금통에 사순 시기 동안 자발적인 희생으로 절약한 금전을 봉헌
② 계좌이체 : 신협 131-018-742128 생명위원회
③ ARS 1877-1574 :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④ 문자 #70791574 : "받는 사람"에 #70791574 입력 후 응원문자 발송

사회복음화국 무료 도시락 조리 및 배달

코로나19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더욱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는 무료 도시락 배달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주 1회 목요일 점심 제공
장소 화서동 이주사목회관
대상 파장동, 이목동 복지 사각지대
분야 준비·조리팀 : 재료 손질 및 취사, 정리 – 매주 목 09:00 ~ 14:00
배달팀 : 도시락 전달 – 매주 목 11:00
문의 031) 268-3907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돈보스코 내일이룸학교 학생 모집

기간 2~12월
대상 15~24세 남(학교 밖 청소년)
내용 기계 가공, CAD/CAM, 인성 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문의 02) 828-3600

그림 에니어그램 심화

일시 3.20(토), 21(주일) 13:30~18:00
장소 우만동 수녀원
문의 010) 7342-9300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묵주 반지·목걸이 교육생 모집

신청 cafe.naver.com/cmc04
문의 010) 5234-5044 가톨릭 목공예

채용 봉사자

동백성루카병원 직원 채용

마감 채용시까지
분야 병동 간호사(3교대)
가정방문 전담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관리
조리원 각 0명
참고 http://db-luke.or.kr
문의 031) 548-0010

수원교구 직원 채용

인원 홍보국 편집디자이너 0명
조건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편집디자인 툴(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사용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감 3.12(금) 17:00. 사무처 행정실
방문 및 등기 우편접수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문의 031) 244-5002

본당

초지동 본당 사무장 / 3.21(주일)까지
관악 성당 관리장 / 채용시까지

기타

제주 성지 순환 버스, 한국 성지 167 완주

제주 성지 순환 버스

일시 매일 출발
내용 제주성지 3만9천 원(6곳)
추자도 5만9천 원

한국순교성지 167 완주(4일)

일시 4.12(월)~15(목) 부산교구, 마산교구
5.10(월)~13(목) 대전교구
문의 010) 8650-9690
미카엘 여행사

국내 성지순례

일시 3.10(수), 3.27(토)
장소 청주교구, 안동교구
내용 베티 성지, 성거산, 서운동
멍에목, 신앙 고백비, 상주 옥터
비용 4만 원
문의 010) 9200-3532 바오로 성지순례

8인부터 시작하는 소그룹 성지순례

내용 전국 167개 성지순례 진행
제주 3일, 4일 성지순례
순교 성인, 박해사별 성지순례
문의 031) 706-9175 비안네 성지순례

다솜터 심리 상담소

내용 불안, 우울, 공황, 가족, 부부
영성 상담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 9295-5912 www.dstcoun.net

몬띠 가족 상담소

내용 부모 교육 훈련, 의사 소통 훈련
분노 갈등 다루기,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아동 상담, 개인 상담
학습 효율화를 위한 학습 컨설팅
성격 유형 검사, 다차원 인성 검사
생애 진로 검사
문의 031) 258-4983 www.mariasons.or.kr

성 소 모 임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3.14(주일) 14:00	서울 분원(해외 선교)	010) 9353-1773

고해성사

기억의 치유
치유를 위한 기도와 고해성사

마태오 린,S.J. 외
1만2천 원
성바오로
02) 945-2972

「기억의 치유」에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고백하기, 치유를 위하여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그리스도께 맡겨 드리기' 등 세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억의 치유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줍니다.

고해의 기쁨

베른하르트 헤링
7천 원
성바오로
02) 945-2972

고해성사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화해와 평화의 성사이자, 은총을 거부하고 어둠의 세력에 이끌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왕국으로 들어서고자 하는 회심의 성사입니다. 이 책에서는 고해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고해성사는 죄에 떨어진 우리가 그 벽을 허물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도록 해줍니다.

고해성사 길잡이
어떤 죄를 고해해야 하는가?

홍문택 신부
2천 원
가톨릭출판사
02) 6365-1888

이 책은 고해성사를 보기 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성찰 안내서입니다. '고해성사 때 어떤 죄를 고해해야 하는지 모르는'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참된 고해 성사가 되기 위해 전제되는 성찰과 통회와 정개(定改) 중 가장 우선이 되는 '성찰'을 돕고자 엮은 책입니다.

cpbc TV | 사순특선 <데칼로그>

방송시간 금 23:00 토 15:00 일 01:00 화 00:00
(2부씩 연속 방송)

CPBC TV에서 사순시기 동안, 폴란드의 세계적인 거장 '크지쉬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영화 <데칼로그>를 방송합니다. 십계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10부작 영화로, 가톨릭대 교수인 최대환(세례자 요한) 신부의 영화 소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물든 인간'임을 깨닫고, 사순시기가 참된 회개의 시간임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TV 184 / 올레TV 231 / Btv 307 / U+TV 274

※ 수원주보에 공연 및 신간(교회인가 필수) 게재를 원하시는 곳에서는 홍보국(031-242-8081)으로 연락 바랍니다.